

[Market FAQ] 비우호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신용카드 산업의 전망은?

– 가계부채 관리부담, 금리 인하,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등에 따른 재무안정성 영향

2024.10.08

금융2실
노효선 수석연구원
02-787-2298
hyosun.roh@kisrating.com

금융2실
정혁진 실장
02-787-2218
hyuk-jin.chung@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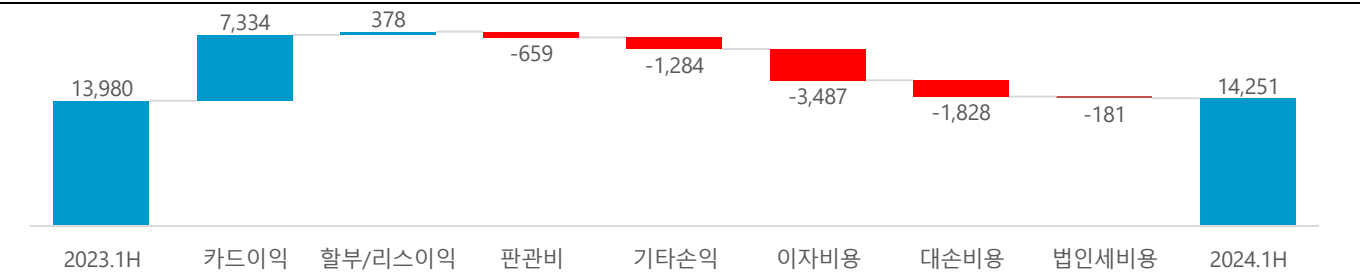
성장 둔화, 수익성 하향 압력,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리인하 전망에 따른 이자 및 대손관리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Market FAQ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Q1.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A: 2024년 상반기 수익성은 일정수준 방어하였으며, 자산건전성 지표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 상승 추세는 과거 대비 둔화되었다. 2025년에는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은 소폭 완화될 전망이나,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에 따른 카드수익 하향 압력, 카드비용 효율화 한계, 카드 대출 관련 대손 부담 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24.1H YoY 당기순이익 변동내역

(단위: 억원)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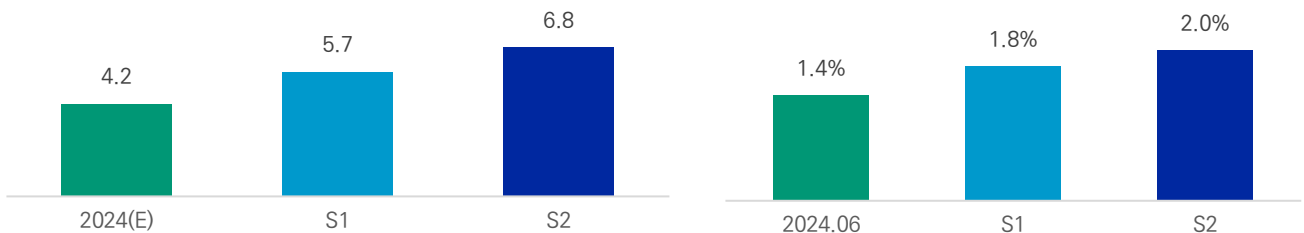
Q2.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A: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대출 취급을 축소하기 어려운 가운데 타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취급 감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저신용 차주의 카드론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카드사들의 대응가능 수준을 검토하였다. 추정 대손비용은 금융위기 기간 평균 수준의 신용악화를 가정한 S1 기준으로 5.7조원, 금융위기 최고조 수준의 신용악화를 가정한 S2 기준으로 6.8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1 기준 대손비용은 충전영업이익 및 자기자본 대비 각각 71.7%, 16.8% 수준으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카드사는 대손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하위사는 S2 기준으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였던 상위사 대비 2023년까지 자산을 확대하면서 취약차주 취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Stress Test 결과 – 추정 대손상각비

(단위:조원) Stress Test 결과 – 추정 1개월이상연체율

(단위:%)



주1) S1(Stress 1) 금융위기의 50% 수준까지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이 저하되는 경우, S2(Stress 2) 금융위기 수준까지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이 저하되는 경우

주2) 2024(E) 대손상각비: 2024년 상반기 대손상각비 연환산. 1개월이상연체율: 단순비율평균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Q3.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관리 부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A: 과거 금리하락기(2011년, 2019년)에는 약 0.5년 ~ 1.5년 이후에 연체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시작점일뿐 연체율 개선 수준 및 속도는 과거 금리 부담 정도, 경기회복 수준, 정책적 지원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번에 예상되는 금리하락기에는 (1) 장기간 이어져온 고금리 기조, (2)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 (3) 코로나19기간 동안 이연된 연체부담 등 비우호적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 대비하여 연체율 개선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Q4.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 시기 도래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여력이 궁금하다.

A: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여력은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 4차례의 가맹점수수료를 인하로 결제부문 채산성은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결제성장 여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추가적인 카드비용 효율화를 통한 대응여력은 크지 않다. 또한 카드대출, 비카드자산 취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도 이자 및 대손부담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Q5. 간편결제 사용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사 영업환경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A: 체크카드 중심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소비성향, 후불결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라 할지라도, 소비자와의 접점이 축소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사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인해 영업기반이 축소되고 카드사들이 간편결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증가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Q6.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가 궁금하다.

A: 자본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나,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및 이자부담을 고려할 때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대비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Contents

Q1.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3
Q2.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6
Q3.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관리 부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10
Q4.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 시기 도래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여력이 궁금하다.....	13
Q5. 간편결제 사용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사 영업환경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17
Q6.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가 궁금하다.	19

Q1.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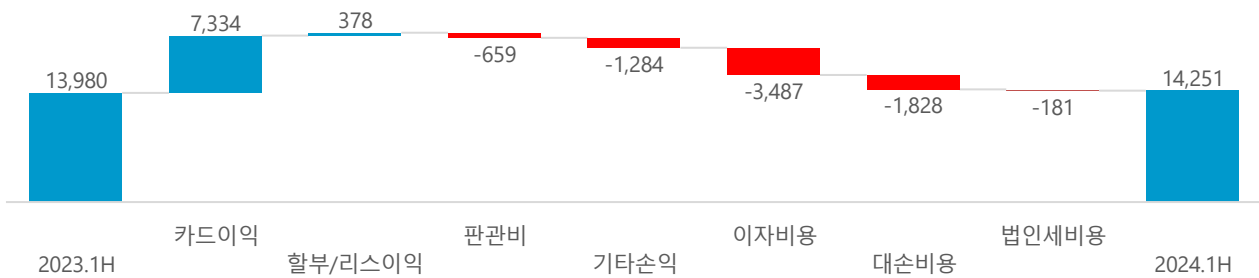
A: 2024년 상반기 수익성은 일정수준 방어하였으며, 자산건전성 지표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 상승 추세는 과거 대비 둔화되었다. 2025년에는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은 소폭 완화될 전망이나,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에 따른 카드수익 하향 압력, 카드비용 효율화 한계, 카드대출 관련 대손 부담 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카드이익 증가가 이자 및 대손비용 상승을 상쇄하여 수익성 소폭 개선 2024년 상반기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억원 (1.9% ↑) 증가하였다. 카드비용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이자할부 및 카드론 이익 확대 등으로 카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0.7조원 증가한 영향이었다.

또한,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0.3조원, 0.2조원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수준은 과거 대비 낮아졌다. 조달비용률은 2023년에는 2022년 말 대비 0.81%p(2.29% → 3.10%) 증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3.45%로 전년말 대비 0.35%p 증가수준에 그쳤다. 대손비용률은 2023년에는 2022년 말 대비 0.73%p(1.65% → 2.38%) 증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2.37%로 2023년 말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24.1H YoY 당기순이익 변동내역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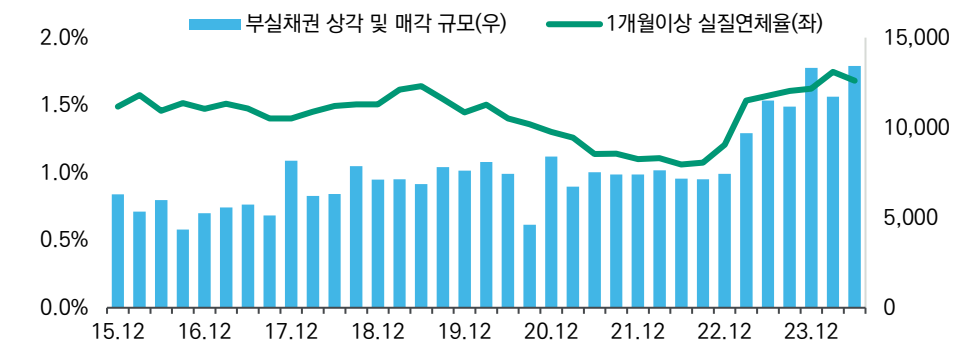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자산건전성 지표는 높은 수준 유지 1개월이상실질연체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은 2024년 6월 말 기준 193.5%로 양호하나, 2022년 말부터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일시불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에서 과거 대비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2024년 6월 말 1개월이상실질연체율은 1.7%로 그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정상→2개월이상 연체전이를 추이를 보았을 때 자산건전성 저하 부담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2022년 말 급격히 상승했던 연체전이율은 현재 정체 상태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규모 및 1개월이상실질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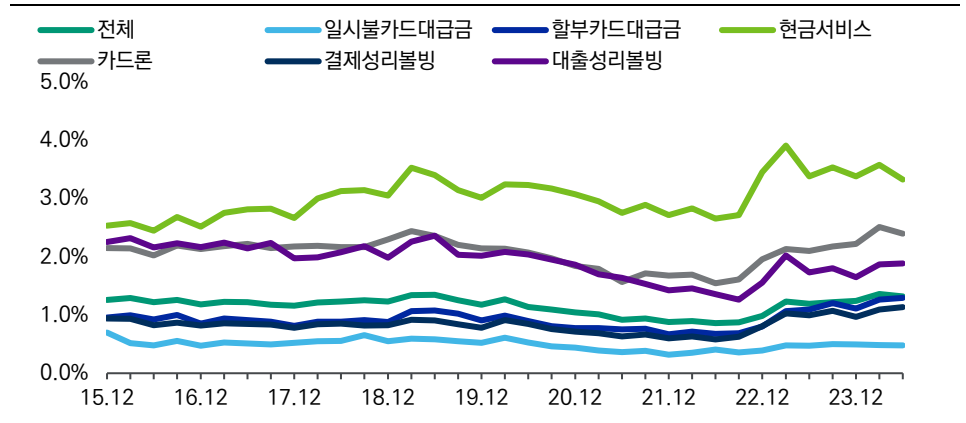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자산별 1개월이상연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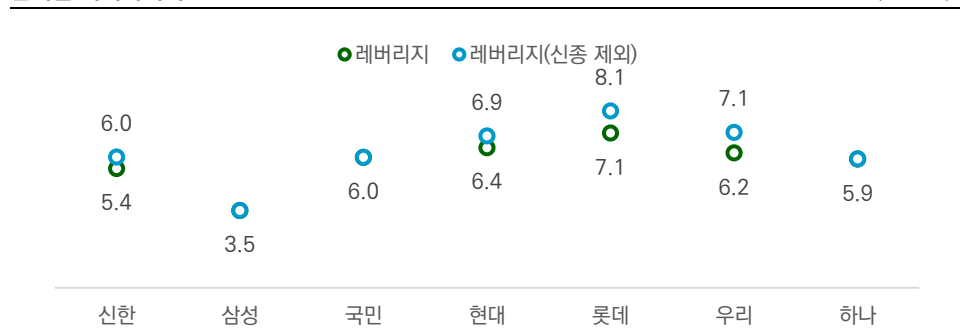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영업자산 성장세 둔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레버리지 관리 중
다만, 규제완화로 자본적정성 저하세

카드사 전반적으로 영업자산 성장속도(현금성자산 등 제외 기준 2023년 말 164조원 → 2024년 6월 말 165조원)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레버리지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2020년 규제 완화 이후 레버리지 수준은 상승(2019년 말 업체 평균 레버리지 5.1배 → 2024년 6월 말 5.8배)하고 있다. 낮은 레버리지 수준을 유지하는 삼성을 제외할 경우 평균 레버리지는 6.2배로 상승한다.

업체별 레버리지 수준

(단위: 배)



주) 레버리지=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조정한 '자산/자본'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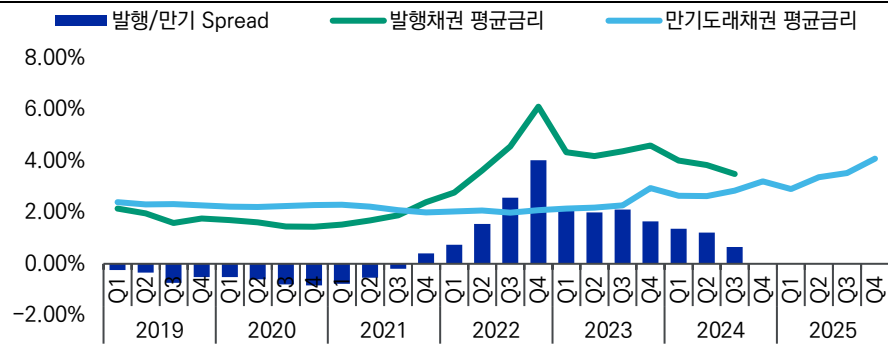
2024년 상반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조달금리 부담은 2025년부터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에 따른 수익성 하향압력과, 카드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손부담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인하 기조로 2025년부터 이자부담 소폭 완화 전망
다만,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조달비용율 유지 전망

2024년 6월 말 카드사들은 총 자금조달의 약 68%가량을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해 기업어음 등을 통해 조달하였던 자금도 최근 회사채로 차환발행되고 있어 회사채 비중이 전체 조달의 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카드채 발행금리에 선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하반기까지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대비 신규 발행하는 회사채의 발행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부터는 신규 발행회사채 금리가 만기도래회사채의 금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금리가 과거 1~2%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으로 조달비용율은 약 3% 초반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채 발행-만기 Spread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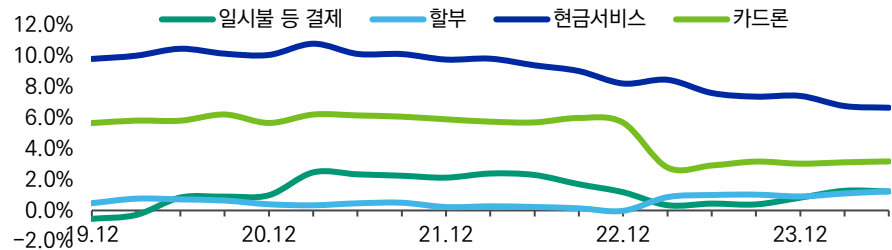


자료: Infomax

- (1)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으로 수익성 관리 부담 존재, (2)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차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부담 지속
- 2012년부터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하면서, 결제부문의 채산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를 카드비용 효율화 및 카드론 등 대출성자산 취급 확대로 수익성을 보완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자 및 대손부담이 지속되면서 카드론 등 대출성자산의 이익률은 감소하는 가운데, 2025년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익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자산별 이익률

(단위: %)



주1) 결제성리볼빙은 일시불 등 결제 부문, 대출성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부문에 포함

주2) 이자비용 및 판관비용은 각 자산별 평잔 기준으로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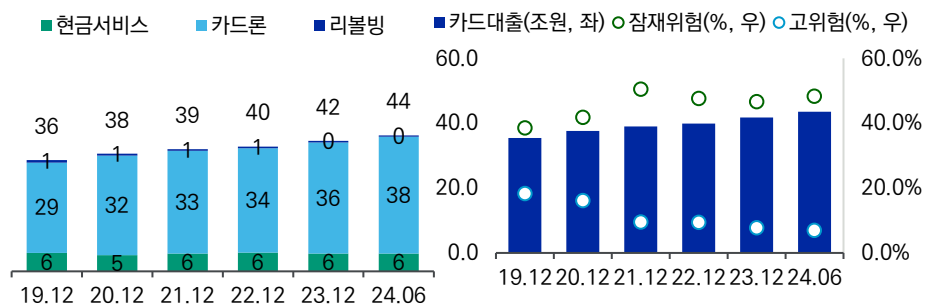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또한, 카드사들의 수익확보 측면에서 카드대출 자산을 큰 폭으로 축소하기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금융 부실 현실화 등으로 실적 부침이 발생한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고강도 리스크 관리를 진행함에 따라 중·저신용 차주들의 수요가 카드론에 쏠리면서 카드대출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카드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에 따라 잠재위험차주의 부실화가능성이 존재하여 향후 대손 및 건전성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카드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원) 고위험 카드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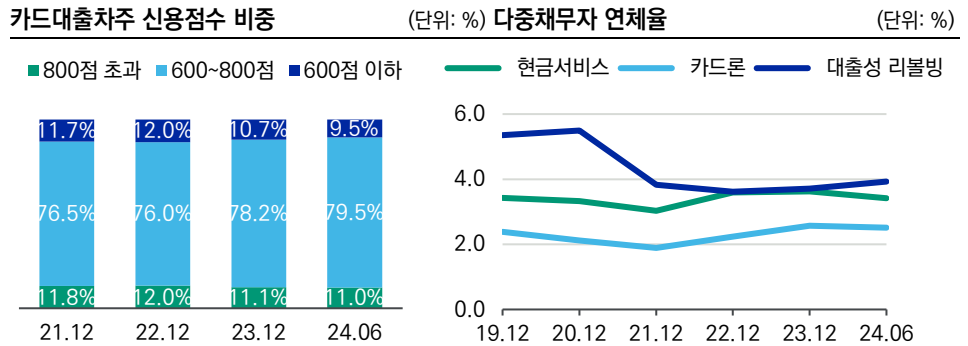


주1)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카드론 + 대출성리볼빙

주2) 고위험 카드대출: 신용등급 600점이하이며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 잠재위험카드대출: 신용등급 600~800점 사이 3건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특히,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대출 차주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중채무자일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졌고, 시장금리가 가계대출 관리 목적으로 정책금리와 다르게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차주의 부실에 따른 대손관리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1) 2021년부터 신용등급점수제 도입

주2) 다중채무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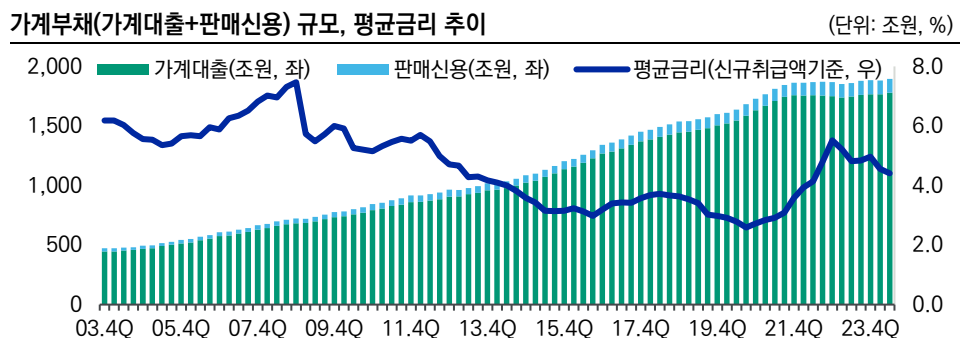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한편, 신용카드사의 부동산 PF 관리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산업 내 부동산PF 잔액은 1.7조원(비씨카드 제외시 1.5조원)으로 전체 영업자산의 0.9% 수준으로 미미하다. 또한, 부동산PF 자산의 84%가 본PF이며, 상환순위상 대부분이 선순위로 구성되어 있어 캐피탈사들이 취급한 자산들 보다 질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Q2.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A: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대출 취급을 축소하기 어려운 가운데 타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취급 감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저신용 차주의 카드론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카드사들의 대응가능 수준을 검토하였다. 추정 대손비용은 금융위기 기간 평균 수준의 신용악화를 가정한 S1 기준으로 5.7조원, 금융위기 최고조 수준의 신용악화를 가정한 S2 기준으로 6.8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1 기준 대손비용은 충전영업이익 및 자기자본 대비 각각 71.7%, 16.8% 수준으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카드사는 대손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하위사는 S2 기준으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였던 상위사 대비 2023년까지 자산을 확대하면서 취약차주 취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2024년 6월 말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1,986조원(1,780조원+11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DSR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하였으나,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어진 저금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2020~2022년 동안 268조원 증가)한 이후로 현재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2024년 9월로 예고됨에 따라 7월, 8월 가계대출 수요가 커지면서 2개월만에 가계대출은 15조원(2024년 6월 말 1,780조원 → 2024년 8월 말 1,795조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상반기(2023년 말 1,767조원 → 2024년 6월 말 1,780조원, +13조원)보다 더 큰 수준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잠정)
시행시기		24.02월 ~ 24.08월	24.09월 ~ (잠정) 25.07월	(잠정) 25.0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주1)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됨. 24.09~24.12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

주2)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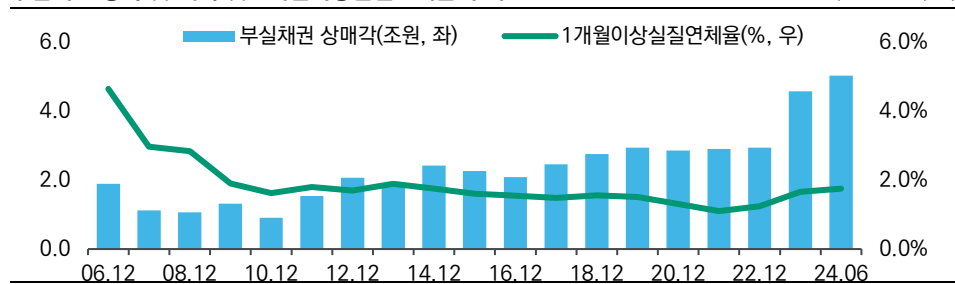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저축은행 등 부동산금융 부실 현실화 등으로 실적 부침이 발생한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고강도 리스크 관리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진행됨에 따라 가계대출 취급을 축소하면서 제2금융권 중 중·저신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카드론 수요가 커졌다. 또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이 강화되고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카드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대출 취급을 쉽게 축소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풍선효과로 카드사들의 대손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사태 이후 강도 높은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은 카드사태 이후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정책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 취급기준 리스크 관리 및 적극적인 부실채권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및 매각하였음에도 2022년부터 연체율이 상·매각으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은 건전성 지표 관리 중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정상→2개월 연체전이를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정상→1개월 연체전이는 감소세이나, 1개월→2개월 연체전이는 증가하고 있어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체율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및 1개월이상실질연체율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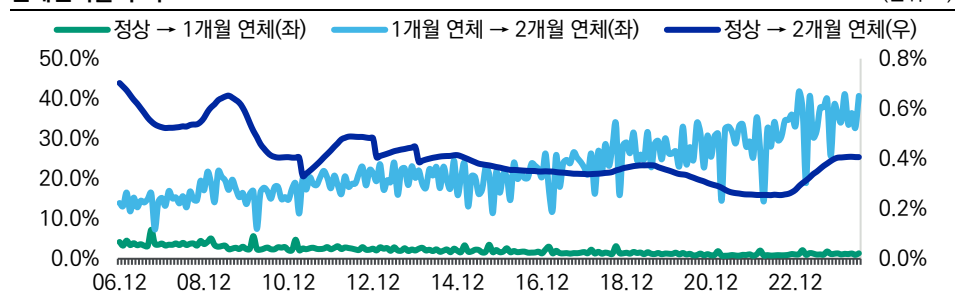
주1) 신한, 삼성, KB국민(2011년~), 현대, 롯데, 우리(2013년~), 하나(2014년~), 이하 동일

주2) 2024년 6월말 기준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금액은 연환산 자료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연체전이를 추이

(단위:%)



주) 12개월 평균 기준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연체전이율 및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위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경기저하 시 카드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 최근 3년(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말) 평균 연체전이율 및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기 (2008년 ~ 2010년) 수준까지 연체전이율이 저하될 경우 향후 1년간(2024.06 → 2025.06 1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저하 수준을 추정했다.

연체율은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에 따른 변동성이 있고, 실질 부실이 발생한 이후 나타나는 후행적인 지표로 각 사의 향후 건전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연체전이율은 향후 건전성 추이를 보다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특히 2개월이상연체가 발생할 경우 장기연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은 자산건전성 변화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에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시, 연체전이율을 통해 향후 건전성 추이 등을 전망하는데 사용하였다.

Stress Test 주요 가정

가계부채 Stress Test 진행 시 카드자산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 영업자산 내 카드자산(신용판매 및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며, 할부/리스 자산의 경우 차량 담보를 고려할 때 Stress Test 상황 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했다. 카드자산의 최근 3개년 평균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이 금융위기의 50% 수준까지 저하되는 것을 Stress 1(S1), 금융위기 수준까지 저하되는 것을 Stress 2(S2)로 하였으며, 회수율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Stress를 반영하지 않았다. 연체전이율은 해당 자산의 부실가능성을, 회수율은 해당 자산의 최종 손실률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주요 가정

- 1) 신규영업자산: 각 자산별 2024년 상반기 이용실적 증가율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월별로 신규자산을 취득하고 각 자산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산이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
- 2) 연체전이율: 각 자산별 2022년 1월 ~ 2024년 6월까지의 구간별 전이율 평균을 고려하였으며 6개월 이후 연체는 100% 다음 연체 구간으로 전이 가정

구간	S1	S2
정상→1개월 연체	3개년 평균 * 1.2배	3개년 평균 * 1.4배
1개월 연체→2개월 연체	3개년 평균 * 1.2배	3개년 평균 * 1.2배
이후	3개년 평균(2개월 이후 연체전이율은 충분히 높아 추가 Stress를 적용하지 않음)	

- 3) 회수율: 3개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말) 정상, 1개월 ~ 6개월 미만 연체 자산의 평균 회수율을 각 자산의 최종 회수율로 고려하였으며, 6개월 이후 연체는 전액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
- 4) 카드자산 이외 영업자산의 대손상각비 및 1개월이상연체액은 2024년 상반기(연환산) 및 2024년 6월 말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산출방식

- 2024년 6월 말 연체구간별 자산에 각 구간별 연체전이율을 곱하고, 신규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12개월동안 월별로 진행
- 그 결과 2025년 6월 말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전 정상 및 연체자산 잔액이 산출되고, 해당 금액에 최종손실률(1-회수율)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대손충당금 산출
- 2024년 6월 말 카드자산 대손충당금과 비교하여 향후 1년간 대손상각비 산출
- 1개월이상연체액에 최근 3개년 평균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률 고려하여 1년 후 추정 1개월 이상 연체율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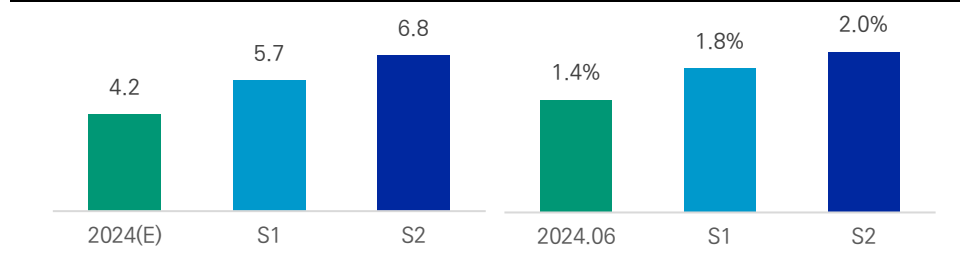
분석결과, 1년 후(2025.06) 대손상각비는 S1 기준 5.7조원, S2 기준 6.8조원으로 나타난다. 1개월이상 연체율은 S1 기준 1.8%, S2 기준 2.0%로 추정한다.

Stress Test 결과

추정 대손상각비

(단위:조원) 추정 1개월이상연체율

(단위:%)



주1) 2024(E) 대손상각비: 2024년 상반기 대손상각비 연환산

주2) 1개월이상연체율: 업체별 비율평균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분석결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이익 및 자본규모 고려하였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대손부담 수준

추정 대손상각비 규모와 2024년 연환산된 총전영업이익(7.9조원)과 비교하였을 때, 총전영업이익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이 S1 기준 71.7%, S2 기준 85.7%(금액합산 기준)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말 합산 자기자본(33.9조원)과 단순 비교하였을 때도 각각 16.8%, 20.0% 수준이며, 단순 레버리지(당기 자산/당기 자본 기준)는 2024년 6월 말(업계 평균 5.6배) 대비 각각 0.6배, 0.7배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대손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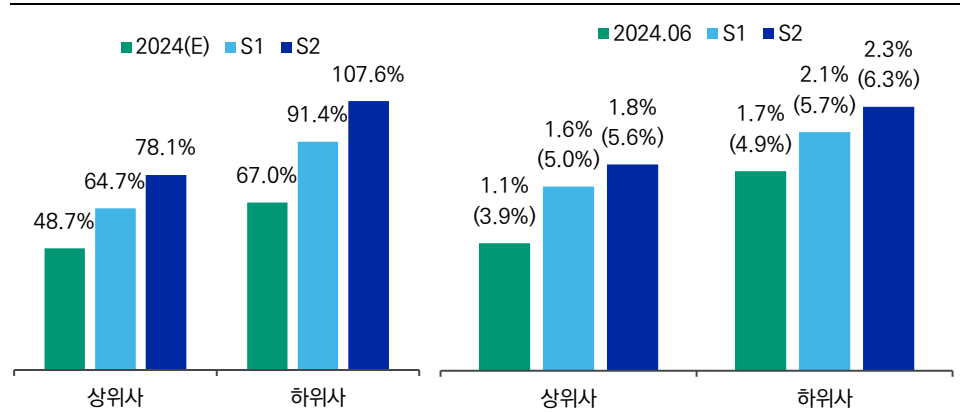
다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 상위사 대비 지속적으로 영업자산을 성장시킨 하위사들은 고위험차주 비중이 높아,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적자 발생 가능성 존재

다만, 업체별로 비교하였을 때 하위사(롯데, 우리, 하나)들의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S2 기준 총전영업이익 대비 107.6%를 기록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였던 상위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들 대비 지속적으로 영업자산을 성장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취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의 상환여력이 저하되면서 2022년부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하위사들의 연체전이율이 높아지고, 회수율은 낮아진 영향이다.

Stress Test 결과 (상위사, 하위사 비교)

추정 대손상각비/추정 총전영업이익 (단위:%) 추정 1개월이상연체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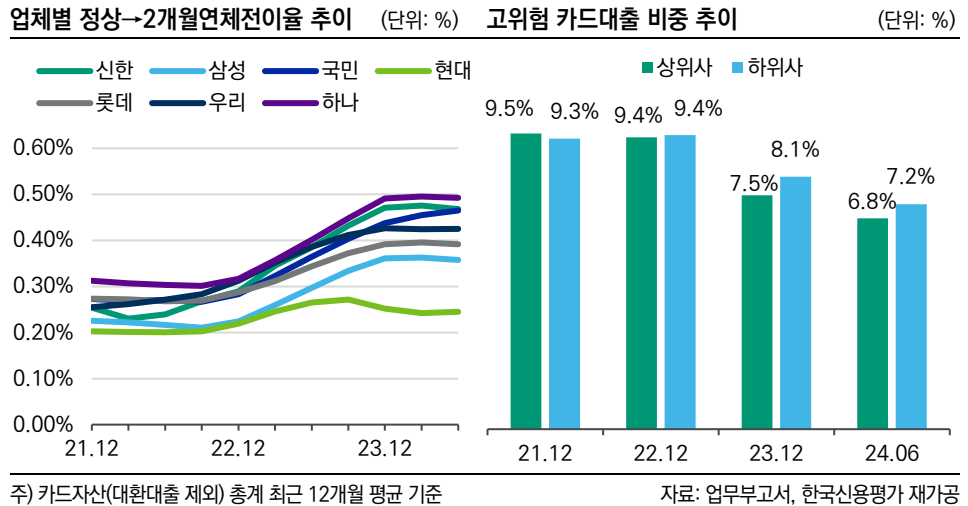
주1) 추정 총전영업이익: 2024년 연환산된 총전영업이익

주2) 상위사: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하위사: 롯데, 우리, 하나

주3) 추정 대손상각비/총전영업이익 비율, 추정 1개월이상연체율: 업체별 비율평균

주4) 추정 1개월이상연체율 내 괄호 숫자는 상각 및 매각 효과 반영 전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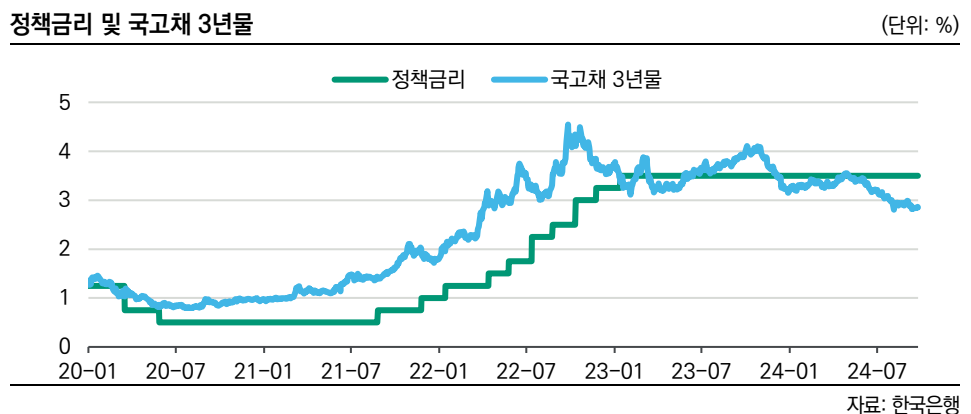
Q3.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관리 부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A: 과거 금리하락기(2011년, 2019년)에는 약 0.5년 ~ 1.5년 이후에 연체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시작점일뿐 연체율 개선 수준 및 속도는 과거 금리 부담 정도, 경기회복 수준, 정책적 지원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번에 예상되는 금리하락기에는 (1) 장기간 이어져온 고금리 기조, (2)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 (3) 코로나19기간 동안 이연된 연체부담 등 비우호적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 대비하여 연체율 개선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국내외 시장에서 금리하락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9월 정책금리를 5.25%~5.50%에서 4.75%~5.25%로 인하하였다. 예상 대비 큰 0.5%p의 빅컷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둔화와 경기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2024년 6월에 정책금리를 4.50%에서 4.25%로, 영국 중앙은행은 5.25%에서 5.00%로 인하하였다.

연내 국내 정책금리 인하 전망 국내는 아직까지 금리인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PF 등의 부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금리 대비 국고채 금리가 0.5%p~1.0%p 정도의 Spread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정책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금리를 보이는 등 시장금리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약 2%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여건은 조성되어 있고, 내수 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면 올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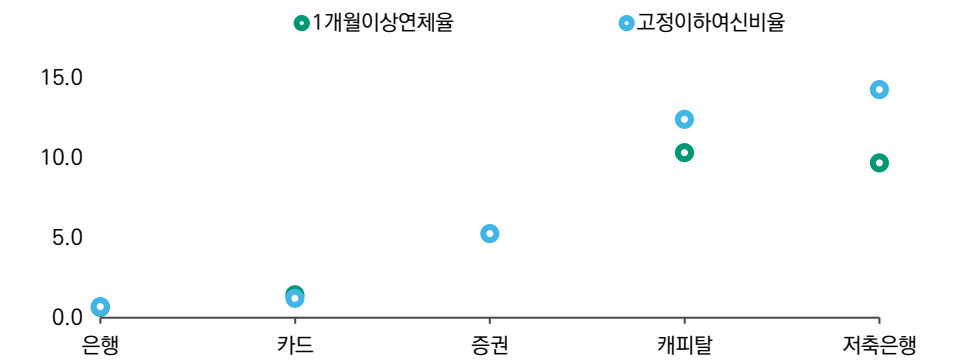
시장 내 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



카드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타 업권 대비 절대적으로는 우수한 수준이나, 과거 대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하 시에 카드사들의 건전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거 금리인하 시기와 비교하여 건전성 지표의 개선 시기 및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업권 건전성 지표 평균(24.06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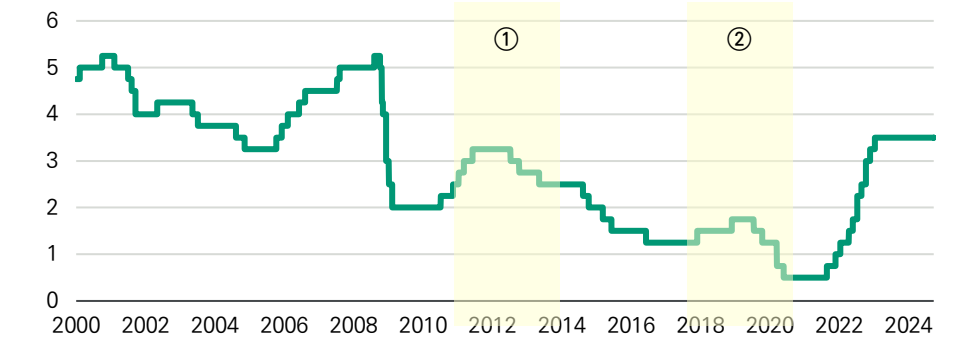
주) 증권: 1개월이상연체율 자료 미제공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위기 이후 금리상승기를 거친 뒤 주요 금리하락은 2차례 존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상승기를 거친 뒤 나타난 주요 금리하락기는 두차례 있었다. 첫번째 기간(기간 ①)은 2010년 7월 정책금리가 2.0%에서 2.25%로 상승한 이후부터다. 2011년 6월 3.25%를 고점으로 약 1년간 정책금리를 유지하다가 2012년 7월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되었다. 두번째 기간(기간 ②)은 2017년 11월 정책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이후부터다. 2018년 11월 1.75%를 고점으로 2019년 7월부터 금리인하를 재개하였다.

국내 정책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주)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기준,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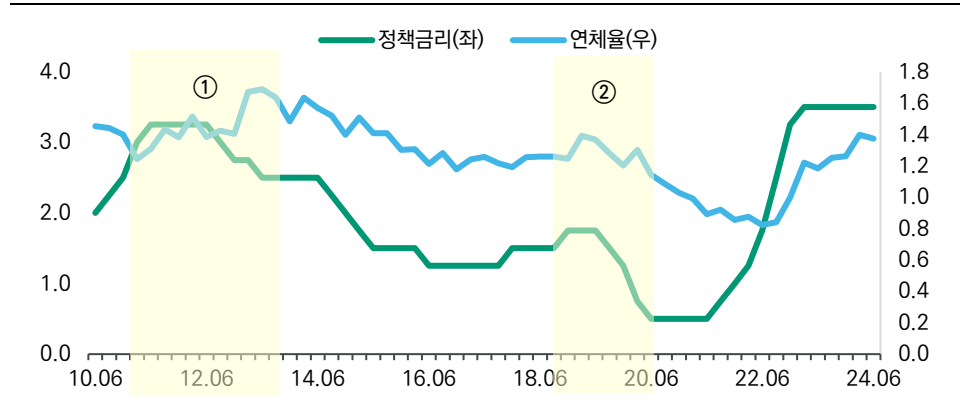
금리하락기 이후 연체율은 0.5~1.5년 이후 개선세 보임
 연체율은 금리 변동 대비 후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인하가 때 연체율 개선은 빠르면 0.5년, 늦게는 1.5~2년 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특성상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약 1년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체율 개선 수준 및 속도의 차이는 경기회복, 정책적 지원, 과거 금리부담 수준과 관련이 높음
 즉, 연체율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주의 실질상환여력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기회복, 소비수준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는 건전성 개선의 시작점일뿐이며,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회복 수준, 실물경기 개선, 소비회복,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여부, 과거 금리 부담 정도가 연체율 개선 수준 및 속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한다.

기간 ①은 기간 ② 대비 연체율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다. 기간 ①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등 경기지표는 기간 ②보다 더 양호하였으나, 금리인하 전 높은 금리(3.25%) 수준이 약 13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차주의 상환부담이 높게 이어진 영향이다. 또한, 기간 ② 전 정책금리는 1.75%수준으로 기간 ① 대비 낮았으며, 기간 ② 중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연체유예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연체율 지표가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정책금리 변동 및 신용카드사 1개월이상 연체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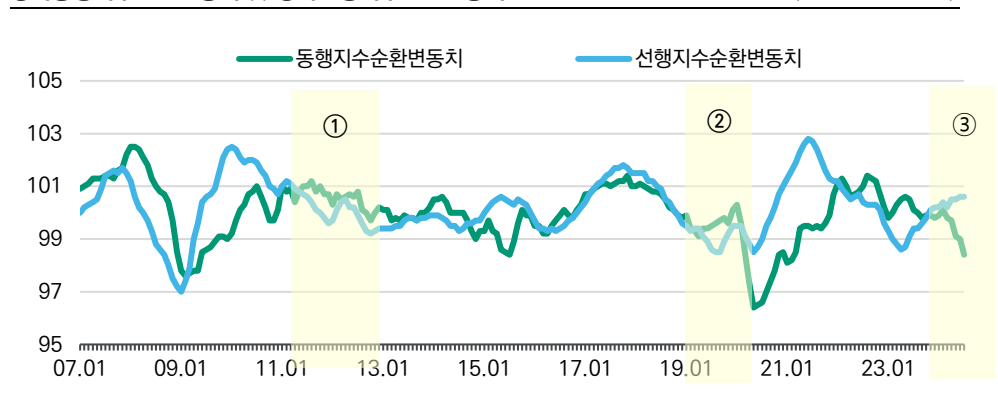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최근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리 인하(기간 ③)에는 기간 ①과 유사한 수준의 경기 수준이 전망된다. 또한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¹는 최근 100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및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단위: 2020 = 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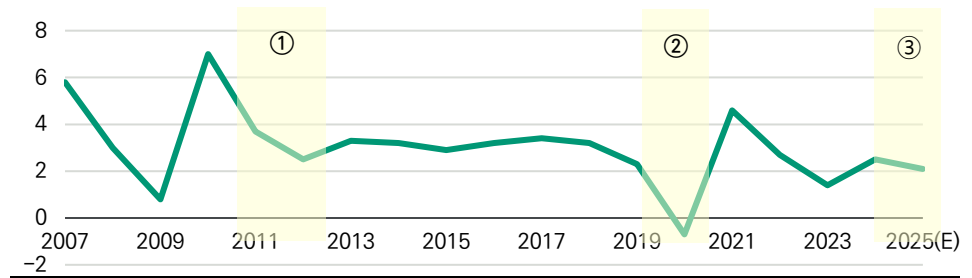
금번 금리인하의 경기환경은
과거 사례보다 비우호적
(1)고금리 장기화, (2)가계부채 부담
지속, (3)이연된 연체부담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대비 연체율
개선속도 지연 전망

그러나 기간 ③의 환경은 과거 두차례 금리인하 대비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기간 ①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3.5%)가 최장 기간(22개월) 동안 유지되며 차주의 상환부담이 더 큰 상태이다. 두번째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는 크지 않은 가운데,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상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세번째로 역사상 낮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정책적 지원으로 이연되었던 연체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¹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이상이면 장기추세보다 더 성장, 100 미만이면 장기추세보다 낮게 성장 예측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이상이면 경기개선, 100 미만이면 경기저하 예측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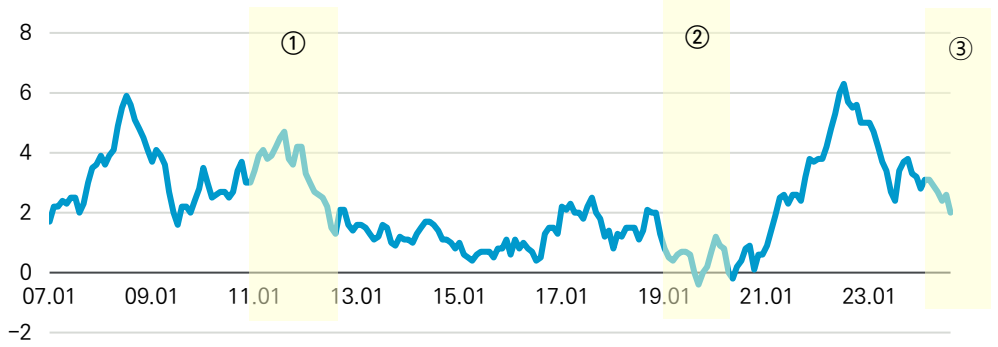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단위: %)



자료: 통계청

금리인하는 연체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연체율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 금리인하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부실가능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경기회복 수준, 실질 취급금리 개선 여부, 과거 금리 추이, 정책적 지원 등에 연체율 개선 속도 및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과거 대비 장기간 이어져온 고금리 기조,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 코로나19 기간동안 지연되었던 연체부담 등 비우호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금번 금리인하기에는 과거 대비하여 연체율 개선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Q4.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 시기 도래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여력이 궁핍하다.

A: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여력은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 4차례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결제부문 채산성은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결제성장 여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추가적인 카드비용 효율화를 통한 대응여력은 크지 않다. 또한 카드대출, 비카드자산 취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도 이자 및 대손부담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년 말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예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적격비용은 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수수료, 마케팅비용(모집비용 및 약관에 따른 부가서비스 이외의 이벤트 비용 제외), 조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우대가맹점 확대 및 4차례에 걸친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연간 가맹점수수료 감소금액은 약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였다.

우대수수료율 변동 결과

		‘12년말 개편	‘15년말 개편	‘18년말 개편	‘21년말 개편	
연매출	2억원 이하	1.5%(1.0%)	0.8%(0.5%)	0.8%(0.5%)	0.5%(0.25%)	
	2~3억원	2.12%(1.6%)	1.3%(1.0%)	2.09%(1.6%)	1.1%(0.85%)	
	3~5억원		1.3%(1.0%)			1.1%(0.85%)
	5~10억원		1.4%(1.1%)			1.25%(1.10%)
	10~30억원		1.6%(1.3%)	1.5%(1.25%)		
	30억원 초과 (평균수수료율)		2.06%(1.47%)	2.07%(1.45%)		
연간 누적 감소 규모 (연간 추가 감소 규모)		약 0.33조원 (+0.33조원)	약 1.0조원 (+0.67조원)	약 2.4조원 (+1.4조원)	약 3.1조원 (+0.69조원)	

주) 주황색 음영: 우대가맹점, 괄호: 체크카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올해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시 도래하였으며, 2024년 8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나온 주된 내용은 (1) 대금지급 주기 단축 등 가맹점 권익 및 소비자 편익 제고, (2)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3) 새로운 결제수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목표는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카드사가 여전히 고비용 구조로 효율화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동 회의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관련하여서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었던 수수료 인하 효과는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나, 여전히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금융당국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하여 일반관리비를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식의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대손비용을 관리하고,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카드비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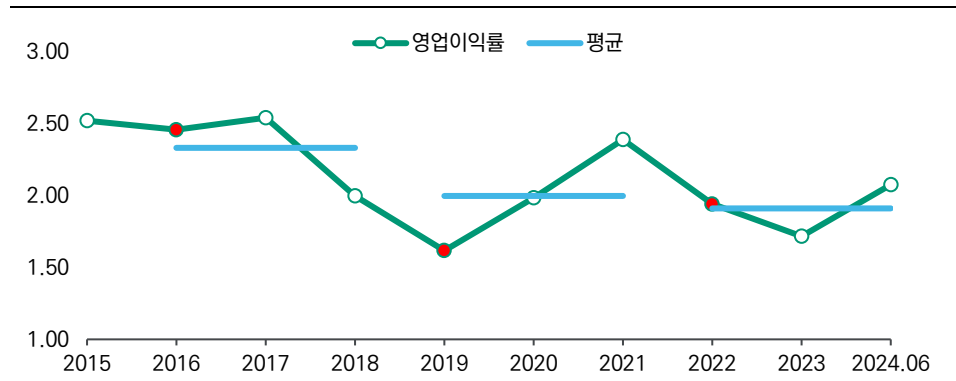
올해도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가능성 높음

직전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시기 때보다 조달 및 대손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의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시에도 인하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번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는 2024년 말(직전 가맹점수수료율 결과 발표 시기: 2021년 12월 21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사 수익성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가 반영되는 시점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후 저하된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 효과는 즉시 반영되지만, 비용절감 및 대출자산 확대 노력 등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2023년도 수익성이 2022년보다 더 저하된 사유는 이자(조달비용률 2022년 2.3% → 2023년 3.1%) 및 대손(대손율 2022년 1.6% → 2023년 2.4%)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다.

카드사 영업이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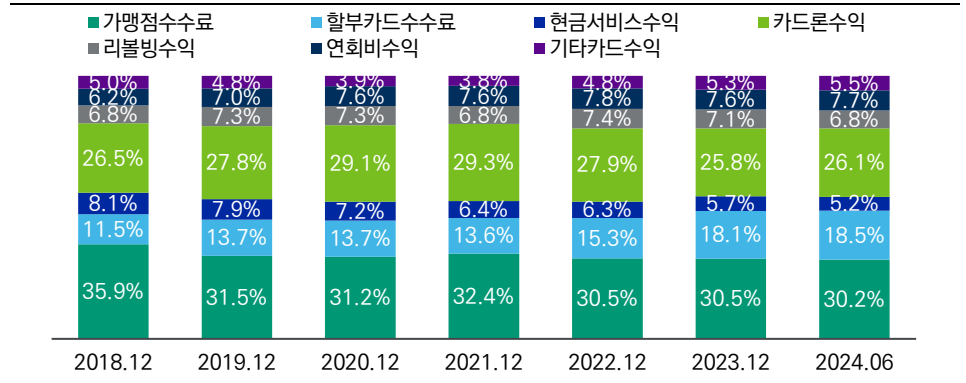
주) 빨간색: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직후 연도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과거처럼 가맹점수수료를 인하 직후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이미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하락 후 점차 복원 전망. 96%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 영향은 과거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에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인하 직후 수익성 감소한 뒤 그간 카드사가 보여온 대응력을 바탕으로 감소된 수익성이 서서히 복원될 것으로 전망한다.

카드수익 내 구성별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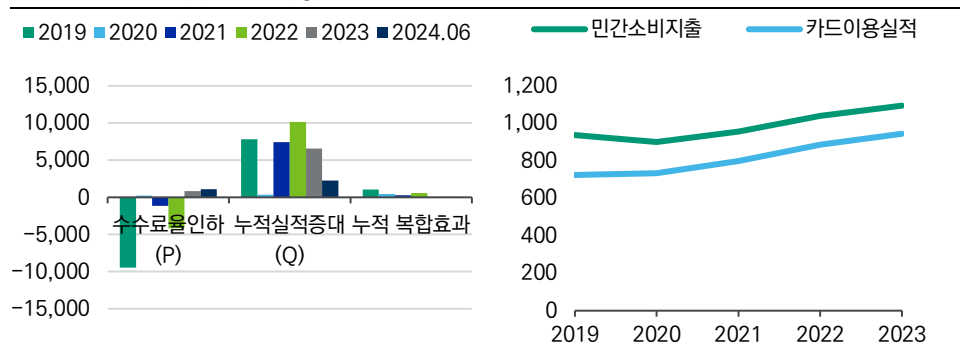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다만, 카드사들의 수익성 회복 수준 및 속도는 예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우호적인 카드사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이용실적 성장가능성 제한적 첫째, 카드이용실적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과거 가맹점수수료를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익이 약 5조원 내외로 유지될 수 있던 이유는 결제이용실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8.8%에서 5.2%로 감소하면서 카드이용실적 성장률도 11.0%에서 6.5%로 낮아졌다. 민간소비지출이 가시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카드이용실적이 민간소비지출 규모에 근접함에 따라 민간소비지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추가 성장가능성은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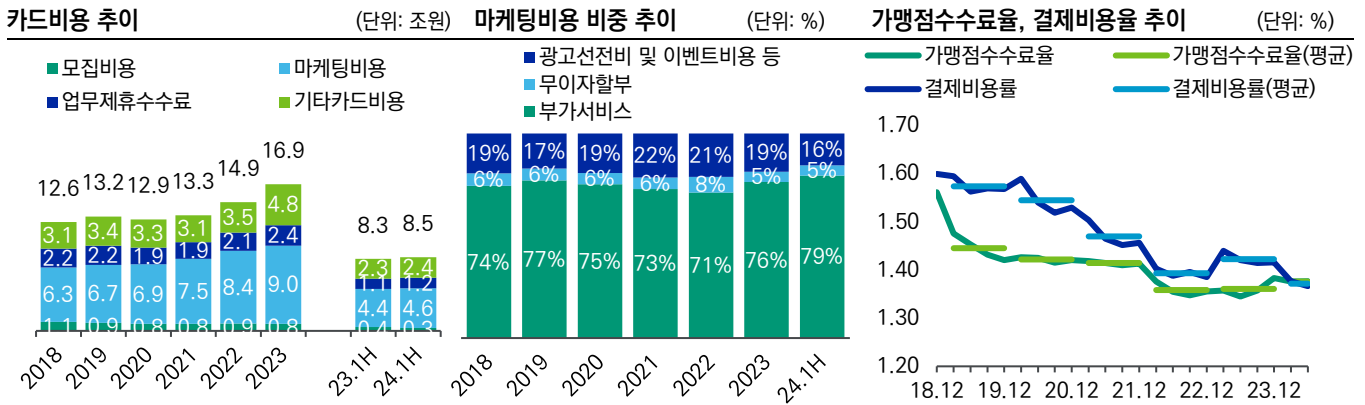
가맹점수수료 가격(P) & 수량(Q) 효과 (단위: 억원) 민간소비지출 및 카드이용실적 추이 (단위: 조원)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낮아진 결제부문 비용절감 노력 둘째, 결제부문 비용 절감 노력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비용을 절감해왔다. 주로 모집비용과 업무제휴수수료(VAN사 수수료 등)를 축소했다. 2023년 모집비용은 0.8조원으로 2018년 1.1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더 감소한 모습이다. 업무제휴수수료의 경우 절대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카드이용실적(일시불+할부+체크카드 기준) 대비 0.25%로 202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 비용들을 이미 상당수준 축소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카드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마케팅비용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용카드 시장 내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3년 결제비용율이 증가한 주 원인도 마케팅비용이다. 마케팅비용은 부가서비스비용, 무이자할부비용,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이자할부 및 광고선전비는 감소되고 있으나 회원 유지 및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가서비스비용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카드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 사업자 등 시장 간 경쟁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 비용을 감축하는 것은 어려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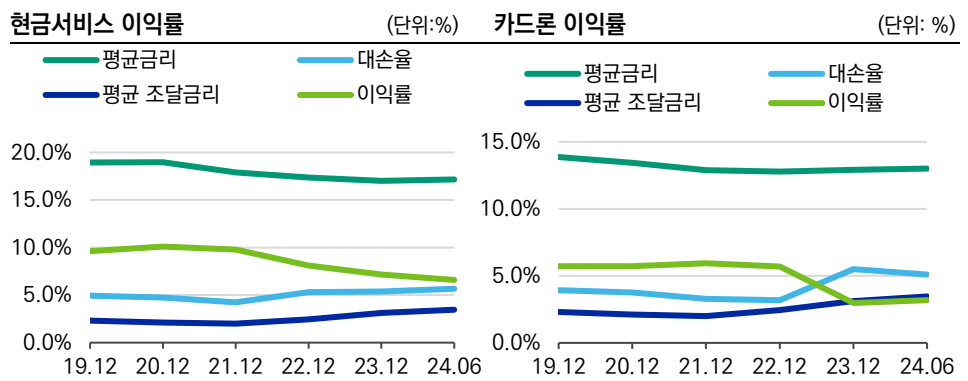


주1) 카드비용율 산출 시 대손비용 제외

주2) 결제비용율 = 결제비용 / 카드이용실적(일시불+할부+체크카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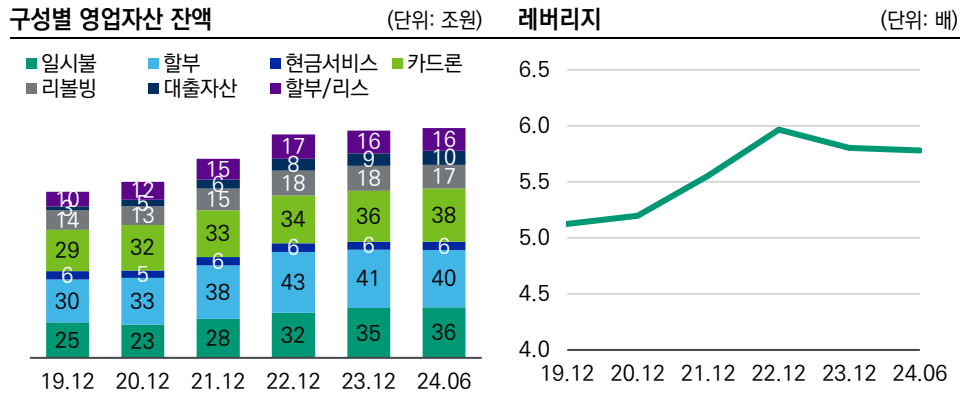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비카드자산 및 카드대출 이익률 저하 셋째, 비카드자산 및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이익률이 저하되었으며, 레버리지 관리 부담으로 외형 확대
및 레버리지 관리 부담 증가 여력 또한 낮아졌다. 결제부문 채산성이 저하되자, 카드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대출 및 비카드자산 취급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자 및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동 자산들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 Q1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이자비용 및 대손부담이 이어질 전망으로 동 자산들의 이익률 개선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또한 높은 레버리지 수준도 부담이다.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규제는 8배이나, 레버리지가 7배를 상회할 경우 배당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 레버리지 규제 수준은 7배이다. 최근 영업자산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신증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나, 2020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레버리지는 2024년 6월 말 5.8배(단순비율평균 기준)에 다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레버리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카드를 제외할 경우, 6.2배까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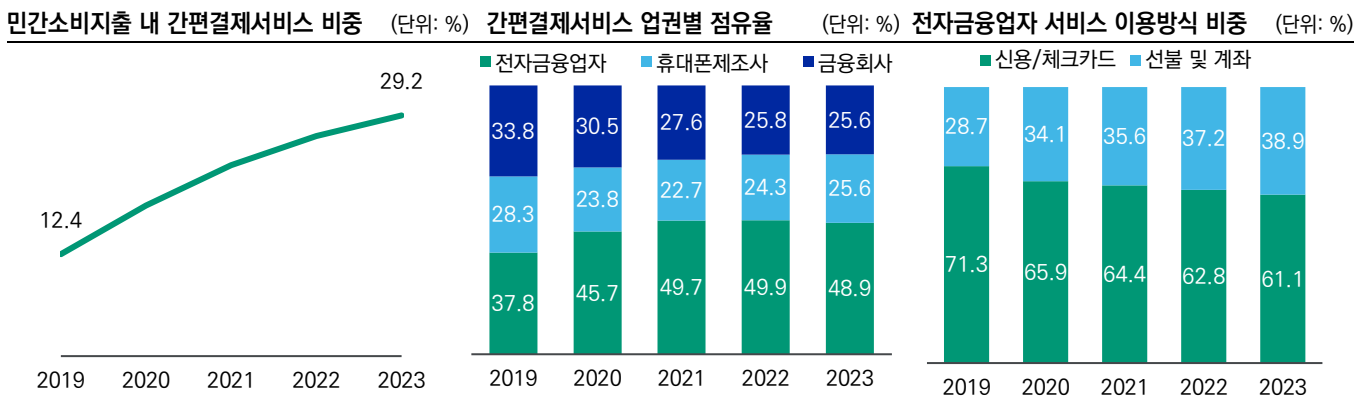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Q5. 간편결제 사용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사 영업환경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A: 체크카드 중심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소비성향, 후불결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라 할지라도, 소비자와의 접점이 축소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사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인해 영업기반이 축소되고 카드사들이 간편결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증가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기술발전과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현금을 대체하는 혁신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연회비)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구매처에서의 수용성에 힘입어 결제수단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술 발전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이 나타나면서 과거 신용카드 성장에 핵심역할을 하였던 요소들이 이제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간편결제 사용 확대 간편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자(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는 과거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체할 때 필요했던 요소의 상당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카드의 후불결제기능, 금전적 혜택, 정책적 지원 등은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시 얻을 수 없었던 소비자의 혜택이었다. 간편결제도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대비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그치고 있다. 익숙한 결제수단을 변경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카드의 강점이 크다는 점, 후불결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대체불가능한 결제수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주1) 간편결제서비스/민간소비지출: 일평균 이용금액을 연이용금액으로 변환한 금액 / 민간소비지출

주2) 전자금융업자: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네이버페이) 등, 휴대폰제조사: 삼성전자(삼성페이), 애플(애플페이) 등, 금융회사: 카드사 및 은행 자체 앱

자료: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간편결제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간편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성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선불 및 계좌 비중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선불 및 계좌 결제와 성격이 비슷한 체크카드 중심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사가 신용카드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전자금융업자가 신용카드의 기본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후불결제서비스를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한도는 30만원까지이고,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기능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Thin-Filer) 중심으로 취급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의 높은 연체율 수준, 강화되고 있는 관련 규정²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금융업자들의 한도 확대 요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잔액 및 연체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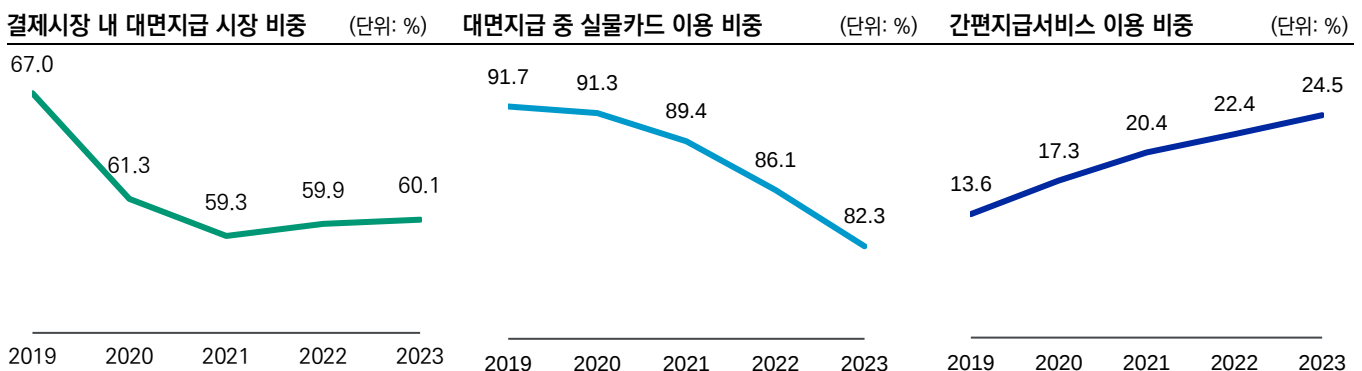
	2022.12	2023.06	2023.12	2024.03	2024.06
잔액(억원)	407	345	283	250	258
연체율(%)	3.06	5.84	1.30	1.29	n/a

주1) 네이버페이(21.02 지정), 카카오페이(21.05 지정, 교통카드기능만 가능), 비바리퍼블리카(21.11 지정)

주2) 2023년 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연체율 감소

자료: 언론자료

다만, 간편결제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 경우, 영업환경 저하 및 수수료 지급 등 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다만, 결제시장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이 간편결제사업자로 이동하는 점은 우려사항이다. 전체 결제에서 아직까지는 대면결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면결제 시장에서도 실물카드보다 모바일기기(삼성페이, LG페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간편지급서비스 이용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제수단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와의 접점이 축소되면서 간편결제사업자의 주도권이 높아지는 점은 카드사의 영업기반 및 이익창출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매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다수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간편결제사업자, 휴대폰제조사, 간편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최종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더라도 카드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간편지급서비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카드등록을 해두고 간편인증수단(지문, 간편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²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요건, 서비스범위, 건전성관리 기준 및 판매규제 등을 여신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 대비 강화함. (단, 포용적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법 대비하여 기준은 완화되어 있음)

1) 승인요건: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

2) 서비스범위 및 금지행위: 인당 30만원 한도로, 예금, 사행성 업종 등 카드사와 동일한 판매금지 품목 적용

3) 건전성 관리: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 연체정보는 금융기관과는 공유할 수 없으나 BNPL사업자간 대안신용평가(금융정보 이외의 비금융정보로 진행되는 개인신용평가)를 위한 공유 가능

4) 판매규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적용받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또한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미지급 사태는 신용거래와 카드사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태 당시 카드이용 취소 및 환불의 우선 주체는 카드사가 아닌 PG사³였으나, 소비자들은 환불 및 취소 지연, 취소불가 등이 발생하면서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카드사의 대응 및 신용거래 전반에 대해 불만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선불 및 계좌결제에 한하여 PG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핀테크사들은 동 자산에 대해 빠른 환불 및 취소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의 핀테크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Q6.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가 궁금하다.

A: 자본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나,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및 이자부담을 고려할 때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대비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자본규제 관리를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가 2020년에 신용카드사 자본규제가 완화된 이후, 레버리지는 증가세이다. 2019년 말 기준 업체별 평균 레버리지는 5.1배였으나, 2024년 6월 말 기준 5.8배까지 커졌고,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보다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레버리지 수준을 관리하였다. 동 기간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규모는 0.5조원에서 2.0조원(2024년 7월 말 기준 2.2조원)까지 증가하였다.

업체별 레버리지 및 신종자본증권 규모 (24.06)

(단위: 배, 억원)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우리	하나
레버리지	5.4	3.5	6.0	6.4	7.1	6.2	5.9
수정레버리지	6.0	3.5	6.0	6.9	8.1	7.1	5.9
신종자본증권	7,000	0	2,500	3,000	4,000	3,500	0

주) 레버리지=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조정한 '자산/자본', 수정레버리지=자산/(자본-신종자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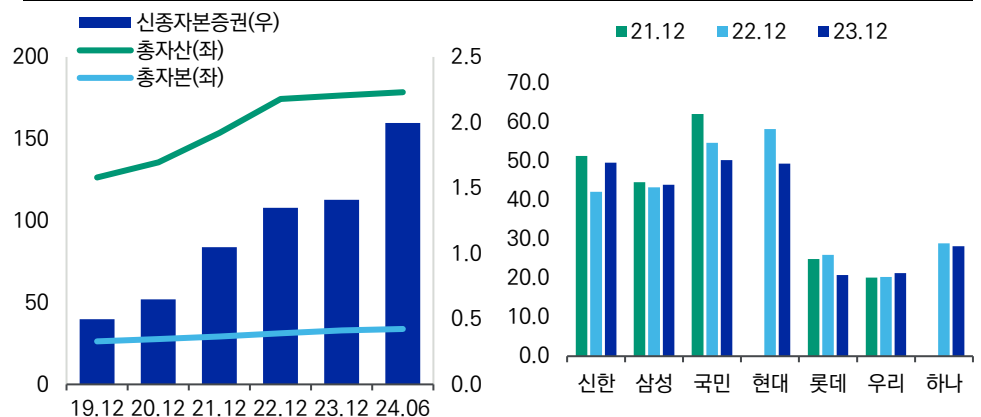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2019년에는 현대, 롯데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나, 2024년 6월 말 기준 삼성, 하나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높은 배당성향이 유지되면서 자본확충은 더딘 가운데 2021~2022년 기간 동안 총 자산이 연평균 13.4%씩 성장하면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추이

(단위: 조원) 업체별 배당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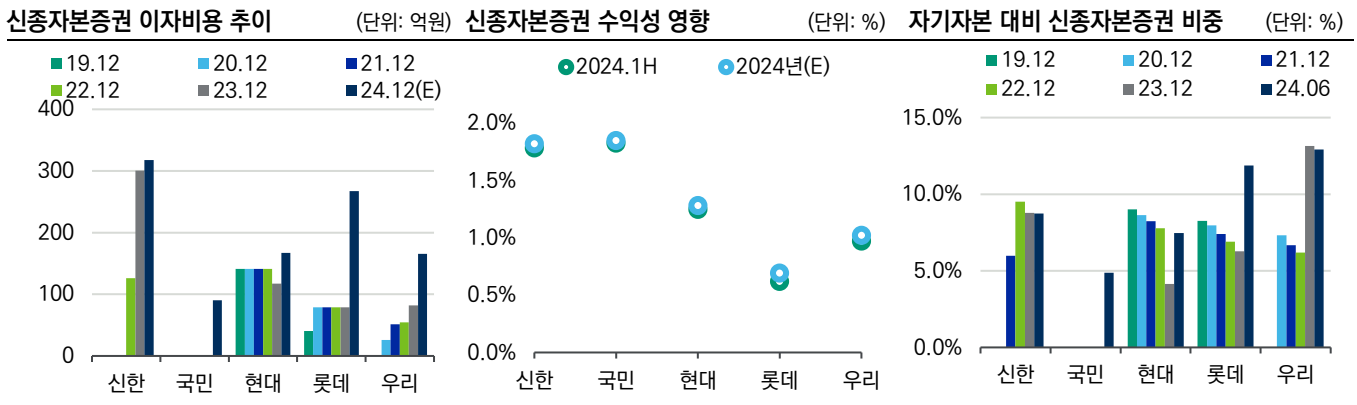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³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이용자의 취소요청이 올 경우, PG사에서 거래취소 요구를 따라야 함

일시적 자본확충의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비금융회사와 달리 금융회사는 자본규제 준수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Step-Up 기일(해당 기일 이후 금리가 증가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였을 때 차환발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보다 타인자본비용이 낮고 재무적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및 이자부담을 고려할 때 자본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신종자본증권은 Step-Up 조건 및 누적적 이자지급이라는 채권적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본성이 약하고, 회사채 대비하여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내부 이익유보를 통한 자본 증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의 질적 수준은 이익누적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보다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개선의 경우 실질적인 개선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주1) 삼성, 하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상기 그래프에서 제외, 2024(E)는 2024년 7월 롯데카드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포함 기준
 주2) 2024년(E): 2024년 상반기 ROA - 2024년 상반기 신종자본증권 이자부담/총자산 + 2024년 연간 추정 이자부담/총자산 자료: 업무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재가공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